

CASA

decorating
shopping
design
lifestyle

LIVING

차분하고 단아한 아름다움
Neutral Color Effect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바 스톨

리빙 맵 업데이트
가로수길 리빙&라이프스타일 습 24

엔틱 테이블웨어와 꽃의 만남
Blooming table

어여쁜 당신, 그린 피그말리온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몸속 독소 빼내기



AUDIO ROOM DESIGN 9

라이프스타일별 홈 사운드 시스템 추천

정가 7,500원

ISSN 1228-8993

01





이광호 옛 향수를 통해 가장 현대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작가 전선과 호스를 마치 뜨개질하듯 엮고 엮어서 만들어낸 의자와 조명들, 금속 의자 위에 곱게 내려앉은 칠보. 작가의 기억 속에서 건져낸 빛나는 과거의 조각들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향수를 자극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마다 작가의 손길이 닿아 있어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자세한 사연을 속살거린다. 작품의 주인인 디자이너 이광호의 이야기들을 말이다.

이광호 작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젊은 나이에 단숨에 국내외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으며 거침없이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디자이너이니 말이다. 그의 작업에서 보이는 손맛은 우리의 전통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도 향후 언젠가 조부모의 고향인 청평 대성리 근처에 내려가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을 만큼, 직간접으로 전해 내려온 과거의 유산은 이광호의 작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부모의 삶이 스민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일상적이고도 전통적인 많은 시각 요소가 그의 작업의 기반인 동시에 앞으로의 비전이기도 한 것이다. 이미지 제공 이광호

구본창

아름다운 모든 것과 소통하는 섬세한 시선

백자나 탈, 참전용사들의 물품 등. 구본창의 화면에 담긴 것들은 작가의 시선을 입어 특별함을 지닌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아주 섬세한 공기를 지닌 화면을 만들어내는 그의 사진은 모두 그를 닮았다.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이며,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찰나의 공기까지 담긴 그 모습들이.

사진과 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본창의 작업에 매우 친숙할 것이다. 그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여전히 한국 사진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 중 하나다. 그리고 여전히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1980년대부터 한국 사진계에 던진 파동은 잔잔하지만 결정적인 것이었다. 기록 매체로서의 다큐멘터리 사진이 주를 이루던 때 그가 보여주었던 사진들은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그를 통해서 한국 사진계는 분명히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본창의 작업이 의미 있는 지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의 사진이 좋은 사진인 이유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그의 아름답고 명상적인 시선 속에는 시대와 교통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로 인한 고민의 흔적이 분명 담겨 있다.

이미지 제공 스튜디오 9

SNOW 31, 2011

